

# 특허청,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한다

- 특허청-코스닥협회, 지식재산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코스닥협회(회장 오홍식)는 7월 26일(수) 10시 코스닥협회(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단계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지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우수한 공공기술 기술이전 △지재산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 지원 △영업비밀 보호 등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 최고 경영자(CEO)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코스닥기업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홍식 코스닥협회장은 “금일 특허청과의 협력은 기술혁신의 상징인 코스닥 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경제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향후 양 기관 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통해 코스닥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균 (042-481-5168)
	산업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철호 (042-481-5662)